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건강검진



건협 시도지부는 '88년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4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해당지역 의보 공단 지부와의 유대하에 실시하는 이번 검사사업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특별교육을 가진 후, 1차(4월 1일~6월 15일), 2차(4월 15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87년 해당 분야 요양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은 각 지역으로 분회 이동검진 반이 출장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건협의 기동성과 정확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88년도 제1차 사업계획 보고와 규정 개정 승인

— '88년 제1차 정기이사회

건협은 '8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지난 2월 26일에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결과 사업추진현황, AIDS 및 간염예방 홍보, 적립금관리현황, '87년도 조사연구 용역 사업 결과, 건강관리 자재확률 조사연구 결과, '87년도 정도관리사업 결과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는 '87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88년도 보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임직원 보수 규정·직원 임용규정·부속의원 관리규정 중 일부 개정,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승인 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4월 7일 禁煙의 날

民·官캠페인 활발

보사부는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금연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 하루 동안 전국 가정 직장 공공장소를 담배연기 없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는 4월 1일부터 1주일을 금연 주간으로 정하고 한국금연 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보사부는 금연의 날에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담배를 사지도 팔지도 피우지도 않음으로써 점차 흡연인구를 줄여나가는 계기를 만들계획이다.

창립 기념일 11월 7일로 변경

- 건협, 명칭 변경일을 기준으로



건협은 창립기념일을 4월 21일에서 11월 7일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 '58년 위생동물협회로 발족되어 '64년 4월 21일자로 기생충박멸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창립기념일로 제정해 왔던 것인데 이번의 변경 이유는 '86년 11월 기협·건협의 통합 이후, 기협에서 건협으로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른 승인일인 11월 7일을 창립기념일로 잡은 것이다.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검사수수료 조정

- 3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적용

건협에서는 '88년 3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검사수수료를 인상·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5일의 의료보험검진수가 인상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나고야 공중의학 연구소 방문

건강관리, 한·일 교류에 새로운 장

분익수 건협 사업과장과 이동춘 대구 지부 3급 임상병리사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일본의 나고야 공중의학 연구소를 방문해 의료기술 연수교육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나고야 공중의학 연구소와 건협의 의료상의 교류를 목적으로 연구소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가또식 자궁암 자가재취기에 의한 검사법 및 과정에 관한 내용이 주로 교육되었다.

이들은 또한 일본과 한국의 건강검사업업을 비교·분석 토의하고, 일본의 일반주민, 학생들에 대한 집단건강검사 현장과 연구소 직원 종합 검사 과정을 견학하고 귀국했다.

퇴근시간 변경

- 3월 1일부터 오후 6시로

건협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적용해온 동절기 퇴근시간을 3월 1일부터 5시에서 6시로 변경 실시키로 했다.